



2면

전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음 6월 7일) 제331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전북도, 복지·보건분야 비전 선포

전북특자도 출범 맞춰
삶의 질 향상 정책 다듬어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등
3대 목표·6개 과제 수립

전북도는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를 위해 복지·보건분야 비전을 선포하고, 각 분야별 추진목표와 실행과제 실천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등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아동 건강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지·보건분야 비전을 선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등이 장애인 노인 아동 건강 보건 분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사회 최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에 맞는 개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행복복지 전복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지난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등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아동, 건강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지·보건분야 비전을 선포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3대 추진목표와 6개 실행과제로 구분해 발표했다.

추진목표는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하는 의료환경 조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및 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투자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든든한 돌봄체계 완성 등 6개 실행과

제를 선정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 이어 희망복지 정책과 보건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포럼이 각각 진행됐다.

복지 분야는 전북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도의원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2024년 본격 운영 예정인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과 제안을 함께 공유했으며, 보건 분야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원

병관리지원단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보건으로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대기업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더욱 새로워질 전북에 걸맞게 각종 복지정책을 다듬게 됐다"며,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전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 "수송 안전 이상 無"

친환경 전기버스 등 도입... 영지 내 30Km 이내 속도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잼버리와 관련, 빈틈없는 수송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행사의 첫 번째 수송 버스는 오는 28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만금까지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순찰대의 호위를 받는다. 특히, 잼버리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수송은 크

게 입·퇴영 수송과 과정활동 수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안 잼버리 영지까지의 입·퇴영 수송은 왕복 2,150대, 도내 14개 시군으로의 영의 과정활동 수송은 잼버리 기간 중 매일 310대가 운행된다.

잼버리장 내 참가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는 친환경 전기버스, 자전거, 전기 카트 등을 도입하며, 영지내 모든 차량은 30Km 이내의 속

도제한을 둔다.

여름 휴가철 대비 조기에 수송차량을 확보해 차질없는 수송계획을 수립하고자 국제대회 및 대규모 인원 수송 경험에 있는 수송업체와 5월 중 수송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TF 구성 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참가자의 수송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수송 중 비상 상황 대처 및 안전한 수송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송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자의 입·퇴영 기간 중 응급상황 대비를 위하여 잼버리 거점 휴게소(서산휴게소 상·하행)에 잼버리 데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요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수송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서 조직위와 여러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안전한 수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주재기자(원주)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상추·수박 등 도내 주요 원예농산물 공급 안정화

도, 집중호우로 생산 차질 우려 품목 도내 우선 공급

전북도는 도내 농협 조합공동법인과 집중호우로 인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도내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상추, 수박, 토마토 등의 생산 주산지인 익산 용동·용안·망성지역에 하우스 590ha 등 도내 9개 시·군 630ha, 1만100여동의 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일 현재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는 상추 1박스(4kg)에 6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 1만9,000원보다 4만9,000원이 올랐고 수박 1통(10kg 기준)은 2만1원으로 전년동기 1만2,000원보다 8,000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7월말~8월초에 제철농산물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타 시·도로 공급되는 물량을 도내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내달 4일 '신나는 예술버스'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8월 4일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체험관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는 버블, 마술, 솜사탕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 상 상문화센터에서 24일 오전 9시부터 2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